

왕의 길을 예비하는
룻기
Ruth

전 종 욱 지 음

일러두기

이 책의 저자는 신내침례교회 담임목사로 내용의 일부는
진리침례교회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룻 기 Ruth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20. 1. 10

지 은 이 | 전종욱

펴 낸 이 | 김영균

디자인·편집 | 금강인쇄 / 김화영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 ISBN 978-89-89741-98-5

■ 정가 5,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본서에 인용된 성경구절은 킹 제임스 흠정역 5판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서문	8
----------	---

룻기의 역사적 배경과 중요성	10
-----------------------	----

제1장 돌아옴

1. 약속의 땅을 떠나다	15
2. 모압을 떠나다	21
3. 약속의 땅에 돌아오다	37

제2장 이삭줍기

4. 룻, 이삭을 주우러 가다	57
5. 보아스의 밭에서	62
6. 좋은 소식	75

제3장 구속자

7. 타작마당	86
8. 친족 보아스	94
9. 보아스의 열심	103

제4장 결혼

10. 신의 한 수, 무르기	113
11. 결 혼	123
12. 베레스의 족보	132

서 문

비행기를 처음 타던 날, 지상에서는 짙은 구름과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구름 위로 올라가자 구름 뒤에는 태양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구름들이 넓게 펼쳐진 것이 마치 두터운 하얀 솜을 넓게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 비행기를 타기까지 구름 아래에서는 해를 구경도 할 수 없었고 비만 내리고 있었는데 구름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룯기와 사사기는 구름의 위아래와 같은 관계입니다. 사사기는 매우 암울합니다. 마치 구름 아래 비오는 날과 같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삿 21:25), 백 마리 양떼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은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이 원하고 자기 눈이 보는 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면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도 모두 자기 마음이 원하고 자기 눈이 보는 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들은 푸른 초장과 잔잔하고 맑은 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흩어지거나 모이거나 무론하고 모두 자신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그 양들의 운명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고 강도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이스라엘 곧 버려진 양들, 이것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짙은 구름과 많은 비와 어둠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룯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룯기는 밝은 태양이 구름 위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둠이라면 뚫기는 밝음입니다. 사사기가 전쟁이라면 뚫기는 평화입니다. 사사기가 하나님의 징계라면 뚫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입니다. 뚫기의 시작은 불행이었으나 결말은 행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사기와 뚫기는 우리로 하여금 구름의 아래와 위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뚫기를 통해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은이 전 종 욱

룻기의 역사적 배경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가 구체적으로 어느 재판관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통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이 살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자손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며 그들의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겨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삿 3:6,7)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고 웃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40년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여 18년을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하셨으며 에훗을 통해 80년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여호수아 시대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8년 지배와 첫 재판관 웃니엘의 시대와 모압의 18년 지배와 에훗의 시대를 일부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는 재판관 웃니엘의 초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면 다음 재판관 에훗의 시대여야 하는데 그때라면 보아스의 나이가 적어도 90-100세쯤 됩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450년 재판관들의 시대(행 13:20) 중에서 초기 재판관들의 시대이며 보아스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니다.

룻기의 중요성

- 1) 등장인물들이 뛰어난 정치가, 군인, 종교지도자들이 아닌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 오르바, 룻, 보아스 등 이스라엘이나 모압의 지극히 평

범한 사람들이 겪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롯기는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실제 생활풍습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2) 보아스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좋은 예가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습니다.

3) 롯기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좋은 예표가 있습니다.

- 이방의 모압 여자 롯 - 신부인 교회
- 보아스 - 신랑인 그리스도
- 무르기를 거부한 친족 아무개 - 율법
- 엘리멜렉 - 넘어진 이스라엘
- 나오미 - 이스라엘의 회복

이방인 롯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11:11).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그가 살던 베들레헬을 떠나 이방인 모압의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 롯이 보아스의 신부가 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와 롯의 결혼을 통해서 나오미가 소망을 갖게 됨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큼니다.

4) 사사기의 모든 무질서와 암울함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가 왕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는 책이라면 롯기는 그 무질서하고 암울한 재판관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필요를 아시고 왕의 길을 예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롯기를 통해서 왕이 아직 주어지지 않는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왕은 매우 특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롯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부으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롯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름들의 뜻

엘리멜렉 - 하나님께서 그 왕이 되시는 자

나오미 - 즐거운

마라 - 쓴, 괴로운

베들레헴 - 빵집

롯 - 우정, 아름다움

보아스 - 힘, 강함

오벧 -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제1장

돌아옴

1. 약속의 땅을 떠나다 1:1-5

1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헬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헬유다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4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룯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십 년쯤 거하였을 때에

5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헬을 떠나 이방인들의 땅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혈통으로는 친족이지만 원수로 견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대언자 발람을 고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으며 그로 인해 영원히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신 23:3,4).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모스의 백성”입니다(민 21:29). 그런데 엘리멜렉이 자신들을 저주하려하였고 주로부터 저주받은 모압, 우상을 섬기는 “그모스의 백성”에게로 온 가족을 이끌고 내려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불행에 빠뜨리는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에 잠시 다니러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

의 약속의 땅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에 기근이 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고도 하지 않았으며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김도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단지 고통스런 눈앞의 기근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근은 분명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근의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들이 주께 돌이켜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대신 기근을 회피하는 편리한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회피는 고통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베들레헬은 빵집이라는 뜻으로 장차 ‘살아 있는 빵’ 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입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에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남편 대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건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도 않고 이방인들과 쉽게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후 두 아들이 각각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취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것으로 인해 주의 분노를 사 이만삼천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민 25:1-9). 유대인들이 모압이나 암몬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느 13:23-27). 그러나 말론과 기론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는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에 들어간 지 십년쯤 되었을 때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으나 자식도 없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편안하게 살고자 모압에 왔으나 그들

은 모임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할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만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손에 움켜쥐었던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합니다. 누구도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7-10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찢어 꿔뚫었도다.”

가치관이 달라지면 추구하는 바도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딤후 6:11,12)

엘리멜렉의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가? 기근이 들면 살기에 매우 힘들어집니

다. 나중의 이야기지만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자 두 엄마가 서로의 아들을 삶아먹기로 합의하고 한 엄마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으나 다음 날 다른 엄마가 약속을 어기자 왕에게 나아와 이를 고소하는 기록이 있습니다(왕하 6:24-29). 이것이 기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그 땅에 기근이나 질병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신 7:12-15, 28:9-12)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의 곡식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 때에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못하리라.”(레 26:1-6)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가족을 이끌고 기근이 없는 모압으로 피하였습니다.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기근이 없는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그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창 26:1-3)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나라에 기근이 들면 왕이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자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기근은 이스라엘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근을 해결하지 않고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서 기근을 피하고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피하고자 모압으로 간 그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일 심판을 피해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압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소망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가나안이 아닌 모압에서 소망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가 모압에서 소망을 찾지 않는다면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세상에 머물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소돔에 정착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방식만큼이나 결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받았고 롯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모두 롯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

의 이름을 자자손손 땅에 남기고자 합니다. 시편 49:11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도다.” 엘리멜렉도 롯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남편이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모압 행을 반대하였을까? 나오미도 남편의 생각에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대신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키며 모압에 계속 거했습니다. 나오미의 소망도 남편과 같이 모압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 대한 나오미의 소망은 헛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소망을 둔 엘리멜렉을 치셨듯이 모압에 대한 그녀의 모든 소망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에 홀로 남겨졌으며 모든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아직도 모압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녀를 지극히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만 세상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수 천 년 동안 반복되어온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모압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2. 모압을 떠나다 1:6-18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켰으나 그들에게서 자식이 없이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최악의 상황에 놓였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으므로 모압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결심하도록 일깨운 것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빵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베들레헴이 계속 기근에 신음한다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계속되고 있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나 여기 모압에 있으나 나오미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계속 기근이 있다면 기근을 피해서 온 그녀가 기근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빵을 주셨다는 소식은 나오미로 하여금 여기 모압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확실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도 자신을 반가이 맞아줄 사람은 없으나 적어도 하나님께로는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땅에 기근이 사라지고 빵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 보사 빵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악을 버리고 우상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며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여기 이방 신들의 땅 모압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해 모압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녀가 . . .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6)

나오미가 일어나기까지 모압에 앉아 있는 지 십년이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올 때는 베들레헴의 기근이 사라지면 속히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1). 그 ‘속히’가 십년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면 주께로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기약이 없습니다. 아니 성공은 그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단맛을 쫓아간 사람이 성공의 단맛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롯은 그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곳에서의 성공 때문에 그 도시들이 멸망하기까지 그 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이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들은 형통하고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고 사는 재미가 넘치는 중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 보사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녀의 반응은 어떨까? 그녀가 모압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면 그녀는 모압에서의 성공을 버리고 쉽게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녀가 모압에 대한 미련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모압에서 완전히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의 철저한 실패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의 실패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이를 말해줍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타국에서 돈 떨어지자 친구도 모두 떠나고 배가 고파 돼지의 사료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전혀 생각나지 않던 아버지 집이었지만 굶주림은 그로 하여금 먹을 것이 풍부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면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가 되어도 여기서처럼 굶주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얼싸안고 입 맞추며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로 맞아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타국에서 계속 잘 나갔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금의환향을 꿈꾸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작은 아들도 금의환향하지 못했습니다. 나오미 역시 금의환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지 않았다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면, 모압에서 성공하였다면, 그녀가 계획하던 일들이 모두 뜻대로 되었다면 그녀는 하나님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련이 그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곳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민 21:29, 사 11:24). 엘리멜렉의 가족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같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났으나 주께서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13-17

13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 내어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자신의 고난 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14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16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니

17 네 자녀들은 서두르며 너를 파괴하던 자들과 너를 피폐하게 만든 자들은 네게서 떠나가리라.”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는 중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가 꿈 속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창 28:10-22).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이라는 뜻으로 ‘벧엘’ 이라고 이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 4:10)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실패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소망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

다. 단지 모압에서는 소망이 사라졌고 가나안 땅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빵을 주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선택이 나오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누구든지 나오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온 자를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방향

7절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사람이 살면서 어디로 가느냐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으며 행복과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저 멀리 물이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신기루입니다. 사람이 신기루를 향해 아무리 달려가도 헛됩니다. 물을 찾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집니다. 회개는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바른 길입니다. 10년 전 나오미의 가족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찾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으나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이

제 나오미는 방향을 바꾸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실패는 정죄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실패는 인생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며 인생의 창조자요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눅 5:5-11).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때 자신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마 11:28-30)

참으로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그가 안전하다 아무 염려가 없다고 할 그때에 갑작스런 멸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귀부인이 되리라, 하고는 이 일들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의 마지막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한날에 한 순간에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하리로다. 너의 수많은 마법과 심히 풍성한 마술로 인하여 그것들이 네게 완전히 임하리라.”(사 47:7-9)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설득 8-18절

나오미가 모압을 떠날 때, 모압 여자인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따라 유

다 땅으로 가고자 함께 하였습니다. 모압의 경계선에 다다랐을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합니다.

1차 설득과 반응 8-10절

8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9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10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2차 설득과 반응 11-14절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11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에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12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자.

13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14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

추되 롯은 그녀에게 굳게 붙으므로”

3차 설득과 롯의 반응 15-17절

15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매

16 롯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18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친정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잘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할 나오미가 그녀들을 모압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들의 신 그모스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을 나오미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15). 반면, 잘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녀들이 남편들에게 친절하였

고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도 친절하였음에 감사하고 주께서 그들의 친절을 갚아주시리라고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한 것은 몇 가지 이유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1) 나오미 자신은 베들레헬에서 떠나 타국 모압으로 올 때 남편과 아들들과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10년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들은 자신이 모압에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 며느리들을 타국인 유다 땅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보아 그녀들에게 너무 가혹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유다 땅에서의 행복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모압에는 그들의 어머니의 집이 있으므로 그녀들을 위해서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녀들이 죽은 자와 자신을 친절히 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녀들에게 친절하셔서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2) 나오미 자신에게 남편도 아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아들이 있어야 형사취수하여 형들의 이름을 잇게 할 수 있습니다(신 25:5,6).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그럴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설사 남편이 있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아들이 크기까지 며느리들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3) 주의 손이 나오미 자신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유대인인 나오미 자신이 주로부터 멀어져 미움을 받고 있는데 이방인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 같이 간다면 그녀들의 앞날은 너무 뻔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자신을 친절히 대한 착한 며느리들에게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4)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미로 하여금 며느리들의 동행을 막았을 것입니다.

나오미 개인적으로는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자손들도 없습니다. 또 십년이나 고향을 떠났으므로 고향에서 자신을 반겨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며느리들이 함께 있다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기근 때 모압으로 도피한 여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며느리들을 향해서는 모압 여자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자신이야 고향에서 비난당할 것을 각오하지만 며느리들에게까지 비난받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자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압 여자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으로 인해 이만 사천 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민 25:9). 아마도 유대인 중에서 그녀들의 남편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도 없는 며느리들이 타국에서 멸시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오미는 그녀들에게 베들레헴에서도 남편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해서 모압에 남아 있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과, 오르바는 그녀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갔고 롯은 끝까지 그녀를 따랐습니다.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가 처음부터 주께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 보사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헤로우신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기

근이 풀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스라엘에게 빵을 주심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8)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9)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녀가 모압 땅에서 고난당한 것이 주의 손이 그녀를 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룯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이방인 모압 여자
- 남편들에게 친절하였음
- 남편들이 죽고 없어도 시어머니에게 친절하였음
-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같이 가려고 하였음

차이점

나오미가 그녀들에게 “돌아가라”고 1차 권면할 때 두 사람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것은 어머니의 백성 때문이지 어머니의 하나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앞뒤를 유추하건데 오르바는 모압의 그모스 신을 계속 섬겼습니다. 나

오미가 마지막으로 롯에게 돌아가라고 설득할 때 이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매”(15). 이로보건데 오르바는 나옴이를 따라 갔어도 지금까지 버리지 않은 그녀의 신들을 베들레헬에서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친 딸처럼 염려하며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유다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었습니다. 오르바는 현실적인 문제를 따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다릅니다. 그녀가 시어머니 나옴이를 따르는 것은 시어머니의 백성에게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에게도 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16,17).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롯은 시어머니를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아니라 믿음에서도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말을 통해 그녀가 모압의 신 그 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17). 롯은 시어머니가 죽어서 묻힌 곳에 자신도 묻히겠다는 것은 죽어도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우르를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

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창 12:1-3). 그러나 롯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부모 친척 친구 이웃을 버리고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롯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모압의 그모스 신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면밀히 비교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모스 신에게서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거나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 복만 받으면 됩니다. 땅에 비만 내려주면 되고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신입니다. 그러나 롯이 나오미를 통해서 혹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인간의 모든 행동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의와 진리를 사랑하시고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오게 된 기근도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자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그모스 신과는 너무도 다르며 그모스 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오미가 당한 현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다면 어찌 자기 자녀에게 이토록 가혹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자신들의 신 그모스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무리 악해도 어떤 징계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저 돼지머리나 갖다 바치면 그만입니다. 그러한 신들은 인격적이거나 도덕적인 신이 아닙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롯은 그모스를 섬기는 자기 백성 모압의 도덕적 수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 가족의 도덕적 수준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모압이라는 딸 자체가 “아버지의 자손”, “나의 아버지로부터”입니다. 모압은 롯의 딸이 그녀의 아버지와 사이에서 얻은 아들입니다(창 19:30-38). 그녀는 나오미가 당하는 시련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악한 행위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징계를 통하여 악을 버리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롯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주저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동서 오르는 그모스의 백성, 그모스의 신들에게로 갔으나 롯은 어머니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롯의 이러한 변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신실해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운명의 결정(선택)들

사람은 어떤 선택(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 혹은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 모압으로 내려가는 엘리멜렉의 결정- 잘못되었음. 비극으로 끝남
-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결정- 옳았음. 복을 받음
- 자신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간 오르바의 결정- 잘못되었음, 완전히 잊혀졌음, 오르바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동서

룻과 함께 계속 시어머니를 따랐더라면 ...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르바는 유대인과 결혼하여 남편을 헌신적으로 섬겼고 시어머니도 친절히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가졌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 시어머니를 굳게 따르기로 한 룻의 결정- 옳았음. 오르바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졌으나 룻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으며 두고두고 모든 세대에 알려집니다.

지금까지 이 네 사람의 결정(선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그들의 운명도 달라졌습니다. 이브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나 먹어도 된다는 뱀의 말을 듣는 선택을 합니다. 그로인해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요 11:25,2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오르바 처럼 다른 우상들은 아무리 믿어도 구원과 생명이 없습니다. 오

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 14:6)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행 4:12)

3. 약속의 땅에 돌아오다 1:19-22

19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나? 하므로

20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룓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9절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나오미는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 베들레헴은 만감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10년 전 그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10년 전 그때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10년 후,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도 그대로요 그녀의 친척 친구 이웃은 변함이 없었으나 자신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룓에게 베들레헴은 시어머니로부터 이야기로만 들었던 곳입니다. 모든 것이 낯선 미지의 땅입니다. 그녀에게 낯선 곳의 두려움이 있었을까?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베들레헴은 전혀 낯선 곳이 아닐 것입니다. 롯은 모압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이곳 베들레헴에 묻히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 롯에게 욱신의 고향이 모압이라면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때부터 마음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10년 전 떠났던 나오미가 모압 여자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다는 소식에 온 도시가 떠들썩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어? 온 도시가 나오미의 소식에 흥분한 것으로 보아 그녀가 과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느 날 기근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도 베들레헴은 아마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주인공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10년 전 그대로 변하지 않고 돌아왔다면 사람들은 이민을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돌아왔네 라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가족과 함께 10년쯤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왔다면 그냥 외국에서 잘 살다가 왔으려니 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백만장자였으나 함께 간 남편과 아들과 재산을 모두 잃고 돌아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비상할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에 대한 관심이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흥분한 것은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풍족한 재산을 모두 잃고 지치고 슬픔에 찬 초라한 모습에다가 과부 며느리인 모압 여자라는 혹 하나를 달고 함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10년 만에 느닷없이 나타난 그녀의 행색은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그 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궁금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온 것이 관심사였

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모압 여자도 신통합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없이 이방인 며느리는 왜 데리고 왔는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 것인가?

그 며느리는 어떤 여자인가?

어떻게 이방인 모압 여자가 여기 유다 베들레헬까지 따라왔는가?

그 며느리는 어떻게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나오미와 롯은 당시 베들레헬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오미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 말은 그녀에 대한 복잡한 심정의 표현입니다. 그녀에 대한 측은함도 있고 조롱과 멸시도 있습니다. 모압으로 갈 때는 모두 나오미를 알았으나 돌아온 지금은 그 때와 너무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두셋만 모여도 나오미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당시 베들레헬 신문은 나오미의 귀향을 특집으로 크게 다룹니다.

“나오미, 빈손으로 돌아오다”

“나오미, 모든 것을 잃은 10년”

신문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25전쟁에 대해 신문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남침하여 일어난 전쟁으로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적을 몰아내고 1953년 7월 27일 현재의 휴전선을 경계로 정전에 합의하다. 참전 군인의 피해 상황: 전사 178,569명, 부상 555,022명, 실종 및 포로 42,769명>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술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런 객관적(일반적) 사실보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였는가? 전쟁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보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경험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베들레헬 신문이 10년간 나오미에게 있었던 사건을 객관화하여 기술한 내용이 3-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룯이더라. 거기 거한 지 십 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1:3-5). 이것은 일반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어떻게 하신 것이냐?를 알고 싶어 합니다. 베들레헬 신문도 그녀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은 연일 나오미의 기사로 채워집니다. 신문들은 저마다 나오미가 이민을 갈 때의 당당한 모습과 돌아올 때의 초라한 모습을 대비하여 크게 씁니다. 예레미야 애가로 나오미를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너를 향하여 손뼉을 치며 예루살렘의 딸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이것이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극치요, 온 땅의 기쁨이라 부르던 도시냐? 하고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자기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녀를 삼켰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분명히 이 날이라. 우리가 그 날을 만나고 보았도다, 하는도다.”(애 2:15,16)

나오미는 그들의 궁금증에 대하여 자신에게 있었던 지난 10년의 일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20,21). 나오미는 자신의 비참한 상

황을 남편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주께서 자신을 대적하셨고 자신을 치셨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결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신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오자 자신의 나이를 묻는 파라오에게 자신의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나?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 길의 햇수의 날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삶의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니라”(창 47:8,9). 야곱은 자신의 날들이 험악하게 되었던 이유가 형 에서나 외삼촌 라반이나 아들들 시므온이나 레위 때문이라고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왕이 되시는 자’인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비록 모압으로 갔어도 남편을 잃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 왕이 되시는 자 엘리멜렉을 떠나보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과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있었던 날들은 나오미라는 이름에 걸맞는 ‘즐거움’과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고 재산은 풍족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엘리멜렉이 그녀의 곁을 떠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오미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자신의 말대로 ‘마라’였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왕이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었으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주었습니다. 그 때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없었고 땅은 소산을 내기를 그치지 않았고 가축은 새끼를 유산하거나 낳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보다 이스라엘은 강성하였고 형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왕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각각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 해 동안 남의 나라 식민지배를 받아야 했으며 비참했습니다. 자신들이 일 년 동안 힘써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다른 민족들이 와서 남김없이 수확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도 있었습니다. 이천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요 1:11).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므로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 민족으로 온갖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였으나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장차 대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때에 그들의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곤고함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롯기는 그 왕의 오는 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지금 나오미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녀의 상황은 마라(쓴, 괴로운)인데 자신을 나오미(기쁜, 즐거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자신을 고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이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신을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는데 자신을 계속 나오미로 부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러나 나오미가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주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그녀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어 12:5-11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나?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6-28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

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 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20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나오미(기쁜, 즐거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모가 나오미라고 지었을 때는 이 아이가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지었을 것이나 그녀의 인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면서부터 그녀의 인생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해마다 죄들을 속죄할 희생을 드려야 하지만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보아 온 대로 나오미는 이방인의 땅 모압에서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되고자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모압으로 내려간 날로부터 그녀의 인생은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쓴, 괴로운)라 부르라” 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때 아무도 불행을 그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성공과 출세와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행복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인생을 달려갑니다.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 평생을 쉬지 않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 인생에게 가까워지는 것은 성공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돈도 아닙니다. 젊어서는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았으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모든 인생에게 가까워지는 것은 꿈과 행복이 아니라 늙음과 병듦과 허약함과 죽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확실했던 꿈과 행복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 갑니다. 대신에 확실해지는 것은 인생은 늙는다는 것이고 인생의 낙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늙음과 질병과 허약함과 죽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일하며 행복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는 것은 모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 모압에서 보낸 10년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요 비극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말합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전 1:2,3)? 사람이 짐승보다도 헛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없는 모압에서 자신의 인생을 끝내면 안 되듯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실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 없이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계나 제품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기계를 만들어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기계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

거나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생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정상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마음대로 행동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창 1:26).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계 4:11).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인생의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광스런 몸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요 3:16,17)

나오미가 겪은 역경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압에서의 비참한 삶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헛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징계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

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
 과 수태를 크게 늘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
 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
 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
 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
 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
 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
 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라, 하시니라”(창 3:16-19). 고통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이지만 하나님께
 서 아담과 이브에게 고통을 더하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
 해서였습니다. 사람은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인생의 잘못을 깨닫고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사사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안식할
 때면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
 다. 그들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들이 고난으로 힘들어지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들
 에게 재판관을 보내시고 구출하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삶과 피를 가진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
 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배신과 고난을 다 겪으셨고 죽음의 속박에
 얽매인 우리를 건지시고자 자신을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도께서는 능히 죽음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시험 당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 보셔서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더 이상 마라라 부를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42-58

42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43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44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45 그러므로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46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47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48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49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5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

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55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의 고난은 그녀로 하여금 모압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들어서 잘못된 행위들을 버리게 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한다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므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즐겁고 재물은 날로 불어나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이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제동장치와 고장 난 차로 가속을 내어 달리는 차와 같기 때문입니다. 욥기 21장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죽기까지 매우 형통합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그들의 씨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황소는 새끼를 낳되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암소는 새끼를 낳되 유산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린것들을 양 떼처럼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도다. 그들은 작은북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기뻐하며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느니라.”(욥기 21:7-13)

우리 인생이 이렇다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에게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할지라도 그는 들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들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도다.”(욥 21:14,15)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도 당장의 형통함을 믿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대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형통함에 취하여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전력질주 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아무 문제도 없었던 그의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가?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악한 자의 계약은 내게서 매우 멀리 있도다.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데도. 그들은 바람 앞의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겨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불법을 그의 자녀들을 위해 쌓아 두시며 그분께서 그에게 보응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리라. 그가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리라.”(욥 21:16-20)

만일 그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제동장치가 있었다면 적어도 자기의 인생을 한 두 번이라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겪었다면 힘들기는 했어도 결과가 이렇게 되지지는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단 것 같은 그의 형통이 그를 이런 파멸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파멸로 가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며 왜 잘못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인생의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어른이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형통하

고 가장 잘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997년 말 IMF 시기에 많은 회사가 부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고 노숙자로 내몰렸으며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때에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너무 형통하여서 세상이 살맛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형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만사가 형통하므로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약함을 알게 하고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을 찾게 하고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결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 함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22절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룓과 함께 돌아왔더라.”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룓과 함께 돌아왔는데”라고 하여 룓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일반적인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의 표현은 룓이 어떤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온 것인지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만일 오르바가 함께 왔다면 그녀에게는 이 표현이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룓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표현인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룓”이라는 말에는 그녀가 자기 고국 모압과 모압의 그모스 신과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서 오

르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압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이런 뜻을 드러 내지 못합니다.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다음에 오는 명절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레 23:10,11). 초실절에서 50일이 되면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을 채우고 일곱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오십 일을 세어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레 23:15,16). 나오미와 룯이 보리 수확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2장

이삭줍기

4. 롯, 이삭을 주우러 가다 2:1-3

1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같지어다, 하매

3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하나님께서서는 나오미와 롯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나오미와 롯은 자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2장은 나오미와 롯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보아스라는 사람의 소개로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인생을 위해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능력 있는 친족은 친족의 상속을 무를의 무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롯을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의 친족이요 부유하여 나오미 남편의 상속을 무

를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강력한 자입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아무 대책 없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예비하십니다. 인생의 큰 문제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 저주, 슬픔, 정죄, 불의, 진노,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롬 5:12). 인생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생의 비극인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지옥에 갈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악한 세상에 살아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분으로 오셨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 5:6-8).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구속자가 되고자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요 17:20). 하나님

께서 고난당하는 나오미와 롯을 위해 보아스를 예비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 신음하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기쁨, 약속, 긍휼히 여김,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회의 약자들 곧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세심한 친절이 있습니다. 수확할 때는 그들을 위해 곡식의 일부를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네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네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 두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레 19:9,10)

또 3년째에는 소출의 십분의 일을 성문 안에 저축하여 레위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삼 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거둔 네 소출의 모든 십일조를 가져다가 네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8,29)

밭에서 수확물을 가져오다가 곡식 단 하나를 잊어버리고 두고 왔다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러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네 밭에서 수확물을 벨 때에 곡식 단 하나를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손의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24:19) 20,21절도 참조

하나님께서 이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배려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노예로 살았으므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행하게 명하노라.”(신 24:22)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려 가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룻은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댁’ 입니다. 모압 댁 룻이 이삭을 주우려 가고자 하는 땅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이 있는 땅입니다. 룻은 그 땅에서 이삭을 줍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말로 미루어 모든 사람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어떤 가나안 여자가 주님의 거둬진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귀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는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마 15:21-28). 모압 댁도 이 가나안 여자만큼이나 자신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절한다 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릅니다. 룻은 그 곳이 누구의 밭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우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룻이 당시에는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룻의 그 “우연히”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우연입

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갖추셨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2장의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모든 손님맞이 준비를 끝내고 초대한 손님을 오라고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에서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에게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왕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습니다(마 22:1-14). 우연은 없습니다. 종들이 거리에 나가서 손님들을 초대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전도지를 보거나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를 위한 은혜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 보아스의 밭에서 2:4-17

4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거늘

5 그때에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6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7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나이다, 하니라.

8 그때에 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네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9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청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

10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매

11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12 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13 그때에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14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에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며 네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그녀가 곡식 베는 자들 옆에 앉으며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15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16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 두어 그녀가 줍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 이처럼 그녀가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자기가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일 에바쯤 되었더라.”

보아스가 종들의 추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수확하는 종들에게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인사합니다. 그러자 수확하는 종들도 “주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고 화답합니다. 보아스와 그의 종들이 나누는 인사를 통해 보아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고, 종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친절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종들의 관계는 이상적인 주종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엡 6:5-9, 골 3:22-4:1). 주종관계가 올바르게 이뤄지면 주인이나 종들 서로가 안정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인도 종들도 서로가 행복합니다. 행복은 돈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만족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혹은 고용주와 노동자는 공생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부자는 일꾼의 품삯을 떼어 먹으려고 합니다(약 5:1-5). 노동자는 회사를 좌지우지 하려 합니다. 자신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을 통해 힘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실수와 같은 것이라.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도다.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전 10:5-7). 아굴은 말하기를, 종이 통치하는 것은 땅이 평안을 잃고 땅이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잠 30:21,22). 주종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는 서로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보아스와 그의 종들의 경우는 오늘날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노사관계가 보아스와 그의 종들과 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종들이 모압 댁 롯의 이삭줍기 요청을 허락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여자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롯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의 종들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임을 알고서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혹은 동족들이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녀의 이삭줍기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종들과 함께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젊은 여자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은 지주이고 일하는 종들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어떤 관

심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감독자에게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감독자는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는지도 곁들여 말했습니다(7). 릿은 책임감도 있고 부지런한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릿에게 친절을 베풁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8).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보아스의 밭이 릿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돈을 매우 좋아하지만 돈은 일정한 이상이면 더 이상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숫자놀이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딤후 6:8). 돈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이 두렵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보기에 옳은 길로 가지만 누구도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허투루 살았다면 몰라도 모두 진지하게 고민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합니다. 70-80년의 인생을 살았어도 자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의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 세상은 우리 인생에게 “다른 밭으로 가거나 떠나지 말며 여기에 있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믿으라고 추천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아스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발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신만으로 우리의 필요가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 14:6)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요 11:25,26)

보아스의 발이 룯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듯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룯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보아스의 발을 떠나 다른 발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죄들의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의 양자 삼으심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세상을 이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얻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보아스는 청년들에게 룯을 건드리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룯은 보아스의 종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보아스는 룯

에게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시기 위해 우물까지 갈 필요 없이 청년들이 떠 온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우물이 귀해 가까이 없습니다. 게다가 추수 때는 기온이 높아 땀 흘리며 일하면 목이 계속 마릅니다. 만일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기 위해 먼 우물까지 갖다온다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룯이 많은 시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밭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보이스의 세심한 배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배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롬 8: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엡 2:8)

10절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룯은 보아스가 타국인인 자신에게 왜 친절을 베푸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룯은 자신의 말대로 타국인이므로 보아스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녀에게 아낌없는 친절을 베풁니다. 보아스가 룯에게 베푼 친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푼 친절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엡 2:11,12).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힘이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롬 5:6-19).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

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왜 친절을 베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1,12절입니다.

11,12절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보아스는 롯의 소식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소문으로 들었던 그 이방인 여자를 직접 보자 그녀에게 친절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롯의 이야기에 감동한 것을 통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롯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의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야기에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시큰둥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한 대속 희생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하며 호의를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룿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룿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시고 친절하시며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마 11:28-30).

보아스는 룿을 만나기 전, 그녀에 관한 모든 선한 행위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보아스가 룿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다른 누구보다도 타국인 룿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라합이 여리고 사람으로 타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타국인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면 그도 룿을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삿 19:12).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히 4:15).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던 날 그녀가 모압 여자 룿과 함께 왔다는 소문은 온 도시에 퍼졌습니다. 보아스나 종이나 같은 신문을 통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자 룿에 대한 이해는 보아스와 종이 서로 다릅니다.

종: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보아스: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

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롯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압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종들보다 롯을 훨씬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롯이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것임도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을 통해서 이방인 롯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좌에만 앉아계시고 또 세상에 오시더라도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천사의 본성을 취하셨더라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에게서 나서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으므로 보아스가 롯을 정확히 알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히 2:16,17). 우리가 인생에서 보아스와 같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해하시려고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경험하셨으므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인생의 비애와 베고픔과 목마름과 시련과 배신과 실망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범죄자로 오해 받아 억울하게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약 이십 년 전, 한 청소년이 죽은 사람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은 신고한 그 청소년을 살인자로 몰아 사형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억울한 죽음을 계속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최근에 법원이 재조사한 결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 당시의 수사 책임자와 담당자들을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나마 진실이 밝혀져 억울한 죽음을 알린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진실을 알아주기를 기대한다면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얼마든지 기대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 의지하러 온 네게” 날개는 보호를 말합니다. 루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나의 보호자로 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미 닭이나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날개로 보호합니다. 어미는 자기 날개 아래 있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자가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삯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삯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삯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 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요 10:11-15). 삯꾼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리 없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진실한 보호자입니다.

13절 룯이 보아스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될 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듣기 좋은 말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룯의 이삭줍기를 허락한 종이나 함께 일하는 소녀들도 룯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룯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룯을 알지 못하면서 위로한다고 하면 위로는커녕 상처만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여자 룯을 보고 종에게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고 물었을 때 종은 룯에 대하여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임을 말하고 그녀가 이삭을 부지런히 줍는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룯은 그 종의 말이 아니라 보아스의 말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그녀를 정확히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11,12). 룯은 자신의 형편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말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곡식 줍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조롱했습니다(1:19). 사람들이 나오미를 조롱하면서 그녀와 함께 온 룯은 칭찬할 리 없습니다. 모압 여자 룯도 조롱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룯이 보아스에게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10)라는 말은 그녀의 그러한 상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룯을 알고 계셨으나 룯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시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룯은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을 너무도 잘 알아주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룯은 보아스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자 없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

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요 16:7)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줍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하시므로 그분은 나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14절 보아스는 룻에게 빵을 먹을 때 식초에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에서는 모르나 들에서는 빵을 식초에 찍어 먹는 것이 보편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빵만 먹으면 곧 목이 마를 것인데 식초는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28-30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시편 69:21 참조

보아스는 말로만 그녀를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녀에게 볏은 곡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었고 그녀가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리게 하였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풍성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주어집니다. 룻이 그날 주운 이삭은 1에바(12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수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곡식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삭을 부지런히 주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삭을 부지런히 줍는다 해도 한두 되 정도

일 것입니다. 룯이 이토록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보아스의 종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곡식의 일부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물을 먹으러 가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룯의 부지런함 때문입니다.(7)

6. 좋은 소식 2:18-23

18 “룻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운 것을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19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어디에서 주웠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자기가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자기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이르되,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매

20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21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내 청년들이 내 모든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너는 그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하더이다, 하매

22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네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

23 이에 그녀가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룻은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위로와 친절과 호의를 가득 받았습니다. 그녀는 1에바(약 12되)의 보리 이삭을 주웠고 시어머니에게 드릴 점심 때 먹고 남은 볏은 곡식도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룻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느라 힘들었지만 기쁜 마음은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지금 뚝은 이 좋은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매우 기쁜 일이 생기면 자신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립니다. 수험생이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하였다면 가장 기뻐해줄 자신의 부모에게 제일 먼저 합격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함께 기뻐해줄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침략으로 사마리아가 포위되자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식료품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고기도 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개(약 400만원)에 팔리고 평소라면 그저 쥐도 안 먹을 비둘기 통 4분의 1갑(약 0.3L)가 은 다섯 개(약 25만원)에 팔렸습니다(왕하 6:25). 성 안의 문둥병자 네 사람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적 시리아의 진영에 항복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군대에게 이 네 사람의 문둥병자들의 발걸음 소리를 군대가 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시리아군은 식사를 준비하다 말고 급히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모든 재물들을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네 문둥병자들이 시리아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시리아 군대는 한 사람도 없고 먹을 것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각종 보물들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실컷 먹고 나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산터미 같이 쌓인 음식이 있다는 이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의 굶주리는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왕하 7:9). 좋은 소식은 누군가에게 그것도 빨리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고침 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다

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는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죄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별로 기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해 안타까는 것이 정상입니다. 룯은 이 좋은 소식을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 룯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낯선 땅의 첫 걸음에서 그녀도 많은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라는 그녀의 말에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 있습니다. 룯의 이삭줍기를 허락한 나오미의 가슴 졸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참으로 룯이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녀를 괜히 베들레헬까지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삭을 주우러 간 룯보다 들의 상황을 알 수 없는 나오미가 더 가슴 졸이며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룯이 많은 이삭을 줍고 붉은 곡식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룯이 가져온 것을 보고 단번에 그녀가 친절 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룯에게 어디에서 줍고 어디에서 일을 했는가를 꼼꼼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룯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였습니다.

“너를 알아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18)

사람이 자신보다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을 축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크고 강한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릿에게 친절과 은혜 베푸는 것에 대하여 비뚤어진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오미가 릿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였다는 것은 그녀가 곧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고(시 41:1) 또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5:7-11

7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네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네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네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고 네 가난한 형제로부터 네 손을 접지 말며

8 그에게 네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꾸어 주라.

9 너는 조심하여 네 악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네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일과 네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와 네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지니라.”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룯을 통해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룯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푼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요 친족인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한 면만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징계하시는 엄한 분이셨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즐거움의 뜻)라 부르지 말고 “마라”(쓴, 괴로운)라 부르게 한 것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간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1:20). 그녀가 이스라엘 땅의 기근 때문에 베들레헬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모압에서 보낸 힘든 시련의 10년은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희생물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나오미는 주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고 고백합니다(1:13).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 보사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에서 베들레헬으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압에 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녀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 또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만 알았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오늘 룯에게 있었던 일은 더 이상 징계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보아스 한 사람의 친절과 호의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행복했

던 과거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현재와의 벌어진 간격을 메우기에 충분하였습니다(사무엘 리도우트, ‘사사기 룿기 강해’). 나오미가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 속에 포함된 그녀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 받았으나(눅 3:38)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메울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서 마귀의 자녀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과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도 오갈 수 없었던 그 큰 간격을 메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이니라”(요 1:12,13). 누군가 하나님에 대하여 심히 실망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과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실망을 만회하기에 충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엡 3:17-21)

롯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오늘 낮에 자신에게 위로와 친절
 과 호의를 베푼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롯
 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푼 것은 그녀의 가까운 친척이요 친족이었기 때문
 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친구와 형제가 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기
 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
 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
 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
 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요 15:13-15). 그녀는 보아
 스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가 또 내게 말하
 기를, 내 청년들이 내 모든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너는 그들 옆에 바싹 붙
 어 있으라, 하더이다”(21). 롯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자
 경험 많은 인생의 선배 나오미가 그녀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조언
 합니다. “내 딸아, 네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
 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22). 나오미의 조언은 인생
 을 오래 살았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험 많
 은 사람이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사회는 성과지상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일의 성과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에게는 경험
 많은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던 사람의 조
 언은 젊은이들의 실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갓 왕이 된 젊
 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 왕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지웠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 왕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통치 경험이 있는 원로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 있을 때에 그 앞에 섰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어떻게 조언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라”(왕상 12:6,7).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듣는 대신에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과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네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잠 1:8,9)

23절 “이에 그녀가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룻 자신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호의요 은혜이며 친절인가를 압니다. 또한 룻이 보아스의 밭에 있는 한 그녀는 안전한 것입니다(9).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것과 같습니다. 보아스의 밭은 룻에게 가장 안전하고 그의 친절과 호의와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온전히 만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고후 8:9).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보리와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리가 밀보다 먼저 자라고(출 9:32) 수확도 보리가 밀보다 먼저입니다. 보리 수확에서 밀 수확까지는 약 50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보응하셨으나 그의 집에 대한 긍휼을 완전히 끊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룯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은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오거나 무신론에서 돌아오거나 불신에서 돌아온다면 나오미와 룯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놀라운 은혜로 그에게 채워주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 룯의 됴됨이

- 하나님과 모압의 신 그모스가 다르다는 것, 즉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친절하였습니다.
- 부지런합니다.
- 정숙합니다.
- 예의바릅니다.
- 책임감이 있습니다.
- 순종하였습니다.

제3장

구속자

7. 타작마당 3:1-7

1 “그때에 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네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2 너와 함께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리라.

3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 네 자신을 알리지 말며

4 그가 누울 때에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네게 고하리라, 하니

5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6 그녀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누우매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웠더라.”

장소는 타작마당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타작도 끝내고 이제 곡식더미가 타작마당에 쌓여 있습니다. 곡식을 까부르는 일은 일 년 농사 중 가장 마지막 과정입니다. 농사의 전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가장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립니다. 농부는 알곡을 뿌리나 밭에는 곡식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농부가 뿌린 것이 아닙니다(마 13:25). 이제 곡식이 익어 수확할 때가 이릅니다. 수확은 시기가 중

요합니다. 수확을 시기보다 빨리하거나 늦추면 곡식의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수확을 가장 알맞은 시기에 하기 위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마 9:37,38).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농부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 매우 궁금해 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곡식으로부터 분리하는 일입니다. 자랄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잘 구분되지 않아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염려가 있어 가라지를 그대로 두었으나 수확기가 되면 가라지는 곡식보다 키가 크고 확연히 구분이 되므로 가라지를 먼저 뽑습니다. 뽑은 가라지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 씨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퇴비더미에 넣거나 쌓아두거나 해도 가라지의 씨앗들이 썩지 않아 이듬해 농사에 올해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뽑은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것이 상책입니다(마 13:30).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운 후에 곡식을 수확합니다. 보아스의 일꾼들도 같은 과정을 거쳐 곡식을 수확하였습니다. 수확한 곡식 단들은 며칠 동안 말렸다가 마당에서 타작합니다. 이것이 타작마당입니다. 타작한 곡식은 마당에 쌓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마지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리를 까부르면 알곡은 무거우므로 그대로 남고 쭉정이는 가벼우므로 바람에 날려 갑니다. 알곡은 공간에 들일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입니다. 농부라면 누구나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골 수 없는 볼로 태우시리라, 하니라”(마 3:12). 타작마당은 심판하는 곳입니다(사 21:10, 렘 51:33). 또 타작마당은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다윗의 범 죄로 재난이 임하였을 때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대상 21:18-30). 솔로몬의 성전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성전은 정결한 곳에 세워져야 하므로 타작마당만큼 정결한 곳이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यो,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대하 3:1). 성전이 타작마당에 세워졌다면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요 15:1).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농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가라지를 분리해서 불에 태우고 곡식을 수확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바로 이 농부들의 하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마음이 고난으로 인해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농부가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듯 죄인들과 의인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에 태우듯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농부는 심판

자입니다. 어떤 농부도 곡식을 수확한 그대로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성한 것과 성하지 않은 것을 판단합니다. 판단은 농부의 일입니다. 이 농부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떤 곡식도 농부의 판단 없이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딤후 4:1)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농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십니다.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농부의 하는 일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농부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누구도 나는 농부를 보지 못했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농부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이 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시간은 밤입니다.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타작마당에 보아스 외에 일꾼들이 없는 것은 일할 수 없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밤은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

시니라”(요 9:5). 세상의 빛이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으므로 지금은 세상이 밤입니다. 밤은 악인들의 세상이고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지 않으며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어둠에 감추어졌던 모든 일들이 빛 아래에 드러날 것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요 3:19,20). 타작마당과 밤은 두려운 조합입니다.

개역성경은 곡식더미를 노적가리라고 하였는데 노적가리는 타작을 위해 곡식 단들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는 2절의 보리를 까부르리라는 말씀과 어긋납니다. 보리를 까부르는 것은 타작을 끝내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리를 까부르기 위해서는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리를 까부른다는 것은 키질하는 것이므로 바람이 없어도 키질을 통해 얼마든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조언

3,4절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 네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가 누울 때에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네게 고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룯에게 한 조언은 보아스로 하여금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확실히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하게 되어 땅을 팔게 되면 능력이 있는 친족이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돌려주는 법이 있습니다. “무르기”라는 법입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무르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레 25:25). 만일 무를 형제나 친족이나 본인의 능력이 없다면 희년이 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희년은 땅이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무르기와 희년에 대한 법을 두신 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형제나 친족의 의무를 상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한 것이며(에 2:12) 성도가 갖춰야 할 기본입니다. “몸을 씻고”는 회개를, “기름”은 성령을, “의복”은 의로 옷 있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그가 잠들 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타작마당에는 보아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꾼들은 집으로 가고 보아스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잠이 들자 룻은 그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깨어서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지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깨어서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룻을 보고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로 단정치 못한 모압 여자로 취급하여 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가 그녀를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의 조언을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동침을 유도한 것이라고거나 보아스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는 경솔하거나 위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보아스를 모르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푼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가 룻에게 이삭을 줌기 위해 추수를 끝마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이나(2:8) 2:11-12절에서 룻에게 말한 것

이 진실이었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반응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롯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였고 그에 대한 나오미와 롯의 믿음이었습니다. 롯은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것을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오기를 기다리십니다(딤후 2:4). 자신에게 의지하러 온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문둥병자이거나 범죄자이거나 흉악한 자이거나 버림받은 사람이거나 38년 된 앓은뱅이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만 그분께서 나의 옛 행실을 알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베푼 친절과 호의가 진실이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요 17:12)

또 한 가지, 보아스가 잠이 들 때 마음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화가 난 상태로 잠들었다면 그가 일어나서 누군가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알고 짜증이나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마음이 즐거운 상태에서 잠이 들었으므로 그가 깨어나서 룿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짐작하기는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원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끝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한 주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거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든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주께서는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8. 친족 보아스 3:8-13

8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이킨즉,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9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룯이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하매

10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 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네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11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12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13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친족의 역할을 네게 행하려 하면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니와 만일 그가 네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니라.”

룯의 요청

발이 따뜻해야 잠을 잘 수 있으므로 발을 덮습니다(삼상 24:3). 그러나 룯은 보아스의 발을 드러나게 합니다(7). 보아스가 잠이 들었지만 발이 드러나므로 잠을 깨게 되고 자기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 있음을 알고 놀라 소리칩니다. “너는 누구냐?” 룯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룯이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룻이 보아스에게 보호를 요청한 것입니다. 옷자락은 2:12절의 하나님의 날개와 같은 뜻으로 보호를 의미합니다(시 61:4, 91:4, 마 23:37). 우선은 추위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들판에서의 밤은 기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룻의 요청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라는 말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족으로서 할 수 있는 보호 즉 구속(救贖)을 요청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6:8절은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은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며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보아스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룻의 친절

“네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네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10)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룻의 처음 친절은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보인 친절을 말합니다(1:8). 마지막 끝에 친절은 보아스에게 보인 친절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젊은 남자들을 따르지 않은 것이 친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 보아스의 나이가 상당히 많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처음 룻기의 역사적 배경에서 보았듯이 보아스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러나 나이가 상당히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빠른 걸음을 요하르로 젊었을 때일 것입니다. 아마도 30대 늦어도 40대 초반일 것입니다. 갈렙이 그때 40세였습니다(수 14:7). 그 후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으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70대 혹은 80대 초반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 까지 살았으므로 약속의 땅에서 약 30-40년 살았습니다. 보아스는 여호수아의 시대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8년 지배와 재판관 웃니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나이가 적어도 50,60대일 수 있습니다. 4:13의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시므로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라는 말씀은 룯의 수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합니다. 어쩌면 보아스의 나이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웃니엘의 40년 이후 모압 왕 에글론의 18년 지배와 재판관 에훗의 시대까지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웃니엘의 시대지만 다음 재판관 에훗의 시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80,90대 일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80,90대라고 해서 놀랄 것은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격전의 시대를 살고서도 각각 120,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보아스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들보다 더 오래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멸하고자 하는 재판관들의 시대까지 살아 있었습니다(삿 20:28). 베냐민 지파를 멸하고자 하는 사건이 재판관들의 초기 시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느하스는 매우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나이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룯이 베들레헬에서 완전히 정착하려면 남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를 무론하고 젊은 사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그녀는 젊은 사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서부터 그녀는 오직 보아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룯이 보아스에게 관심을 둔 이유는 그의 재력이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엘리멜렉의 구속자가 될 자격과 변함없는 친절과 호의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무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보아스와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땅을 무를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보아스 뿐입니다. 그래서 룯은 오직 보아스에게만 관심을 둔 것입니다. 나오미 또한 룯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서는 보아스가 적격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룯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기꺼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룯에 대한 친절과 호의는 보리를 수확하던 처음의 만남부터 수확을 마칠 때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룯에게 친절하였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룯 또한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에 감사하여 보아스 이외 다른 어떤 젊은 남자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룯의 친절을 기억하였고 룯이 그에게 구속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그는 주저 없이 그러겠노라고 응답합니다. 보아스의 룯에 대한 친절과 호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룯처럼 반응한다면 주님은 기쁘게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아래 팔린 나를 구속하시려고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우리의 관심은 뭇처럼 누가 나의 구속자인가에 있어야 합니다. 뭇과 함께 보아스의 밭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럿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 남성으로서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뭇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뭇에게 구속자가 될 의무와 능력과 친절을 가진 사람은 보아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뭇이 보아스 외에 누구도 따르지 않은 것은 지극히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 현명한 처사가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과 종교들이 있고 교주들도 있지만 우리의 구속자가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나 우리와 같은 죄가 그분에게는 없으시므로 우리의 구속자가 될 자격과 능력과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신들이나 사람이나 종교도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구속자가 될 수 없는 신들과 종교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죄 값을 지불할 자격도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죄 아래 팔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음을 알고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고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49 재나 **천도재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 뿐입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남은 사람들의 죽은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살아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대신 죄가 되어 주거나 죄를 깨끗하게 해주지 못했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면서 죽고 나서 그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악한 거짓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 무능력한 자들에게 관심을 둔다면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보아스의 룯에 대한 친절과 호의는 변함이 없었지만 룯이 보아스보다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녀는 보아스에게 구속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그녀가 필요에 따라 그에게 구속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할지라도 보아스는 그녀를 현숙한 여자로 알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던 그런 여자를 위해 구속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구속할 능력이 없는 그런 별 볼일 없는 신들과 종교들을 따르다면 나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 헛됩니다. 룯은 구속자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보아스에게만 관심을 두었고 그녀의 행위는 온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11)

밤에 남자의 발치에 누워 이불을 같이 덮고 있는 행위에 대해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위는 현숙한 여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여자가 룯의 행동과 똑같이 했다면 그것은 현숙한

여자의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네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자인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11)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는 룯의 요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신 25:5,6). 보아스는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는 룯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행동이 그녀 자신의 행동이 아님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룯은 모압 여자이므로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룯의 행동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에 따른 것입니다. 보아스도 룯이 현숙한 여자임을 인정합니다.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는 룯의 5대손인 솔로몬이 잠언 31:10-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가 이렇습니다.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또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뉘를 정하여 주며 발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힘 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물레 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잠 31:13-20). 솔로몬은 자기 5대 조모 룯을 현숙한 여자의 표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룯이 현숙하다는 것은 베들레헴 도시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모압 여자에 불과하였지만 그녀의 행동거지를 보며 사람들의 평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룯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가 보리 수확기

였으므로 보리 수확을 마칠 때까지는 길어야 한 달 반 정도의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소문이 짝 퍼졌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하나는 잘 봤더라.” “그런 현숙한 며느리라면 일곱 아들보다 낫다.” “나오미는 어떻게 그런 참한 며느리를 얻었나?” 모두가 그런 며느리를 얻은 나오미를 부러워하고 릿을 칭찬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효가 중시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릿과 같은 며느리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더욱 귀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는 것은 시대의 풍조이지 릿과 같은 행동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 때보다 더 어두우므로 릿의 행동은 더 빛을 발합니다. 이 시대에 릿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릿이 현숙한 여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듯이 그리스도인도 올바른 행실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릿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는 보아스의 말은 릿이 보아스에게 말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에 비난받을까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요구는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구속자가 되어 달라는 릿의 요구를 기쁘게 수락하였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무를 자로서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릿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찾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알아서 일을 다 처리할 것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대한 구속자로서의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보아스는 그 친족이 엘리멜렉을 위해 구속자로서의 의무를 행할 것인지 아닌지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전 7:23)

* 49재: 불교의식에서 사람이 죽은 다음 7일마다 불경을 외면서 재(齋)를 올려 죽은 이가 그 동안에 불법을 깨닫고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비는 제례의식입니다. 칠칠재(七七齋)라고도 부르며 이 49일간을 ‘중유(中有)’ 또는 ‘중음(中陰)’ 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죽은 이가 생전의 업(業)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의 인연 즉 생(生)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원래 불교의 ‘무아설(無我說)’에 따르면 개인의 생전의 행위 자체에 대한 업보(業報)는 그 사람 개인에 한정되며 어떤 방법으로도 자녀 또는 그 후손 누구에게도 전가될 수가 없으며 전가시킬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교사상은 이 49일 동안에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하여 그 후손(後孫)들이 정성을 다하여 재를 올리면 죽은 부모나 조상이 후예들의 공덕에 힘입어 보다 좋은 곳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조상의 혼령이 후손(後孫)들에게 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9재는 유교적(儒教的)인 조령숭배(祖靈崇拜) 사상과 불교의 윤회(輪廻) 사상이 절충된 것입니다.

** 천도재: 죽은 이의 넋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행하는 의식.

9. 보아스의 열심 3:14-18

14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밭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매 보아스가 이르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 하여야 하리라, 하고

15 또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하매 그녀가 그것을 잡으니 그가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이워 주매 그녀가 도 시로 들어가니라.

16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고하고

17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매

18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 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는 아직 정식으로 엘리멜렉의 땅을 무를 자가 아닙니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치에 누웠지만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그녀가 밤에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 룻이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왔었다는 소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룻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룻이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

스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롯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입니다. 보아스는 롯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간음하다 잡혀 억지로 주님 앞에 끌려온 여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녀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며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수치를 감추어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므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자신이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십니다.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세상? 그리스도?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몰라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는가? 물론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는 않아(14) 사람을 정확히 알아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오미가 며느리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 “내 딸아, 너는 누구냐?”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내 딸아”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며느리임을 알았습니다. 시간으로도 밤은 이미 지났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밖으로 다니기에는 이르지만 어두워서 사람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둔 밤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보아스가 13절에서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고 한 말과 맞지 않습니다. 그녀를 밤중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밤을 지내라고 한 것인데 아직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어둔 밤에 롯이 돌아갔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혹은 시어머니가 깊은 잠이 들었다가 며느리가 깨우는 소리에 놀라 “내 딸아, 너는 누구냐”고 물은 것도 아닙니다.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보

내고 잠 못 이루기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돌아올 시간과 며느리의 음성, 형체, 옷 소리, 발자국 소리로도 며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이 기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우리는 그를 반기며 “이게 누군가?” 라고 말합니다.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맞이하는 사람이 찾아온 사람을 반가워서 “이게 누군가” 라고 말합니다. 맞이하는 사람은 궁금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 릿을 맞이하는 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른 아침에 돌아온 릿을 맞는 나오미의 말에도 이런 반가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놀라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여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나오미가 릿의 표정과 어조와 그녀가 가지고 온 곡식과 그녀의 행동으로 보아 나오미는 일이 잘 되었음을 한 눈에 알았습니다.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라는 말에는 기다리던 릿이 돌아왔으므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보아스가 무어라고 말하더냐,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일은 잘 되었느냐, 다른 일은 없었느냐, 이 곡식은 무어냐 지금 나오미가 릿에게서 알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질문들을 한 마디로 “너는 누구냐”로 표현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를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고 번역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은 릿기를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는 쉽지만 나오미가 릿을 맞는 반가운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너는 누구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오미의 가득한 궁금증에 대해 릿은 시어머니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고하고” 끝으로 릿은 곡식에 대한 일을 말함으로 지난 밤에 있었던 모든 이야

기의 끝을 맺습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나이다.”

17절 보아스는 룯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다.

보아스가 룯에게 타작마당에서 되어 준 보리는 쪽정리와 분리한 알곡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들을 줍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재물, 명예, 지식, 신념, 자의식, 인기, 성공, 출세, 자랑, 건강, 종교, 철학 등등.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아무런 소용도 없는 쪽정리들입니다. 이것들은 인생이 영원을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룯에게 되어 준 알곡에는 버려야할 쓸 데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쓸모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을 사는데 필요한 거둢남, 아들의 신분, 사랑, 지혜, 의, 진리, 거룩함, 생명, 구속 등등의 알곡을 주십니다.

보아스는 룯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보내지 않았습다. 나오미는 많은 것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으나 그녀는 모압에서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1:21).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리라 기대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을 거둔 것과 상관없이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돌아갈 때 손에 가지고 갈만한 마땅한 것을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으므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외교나 사업에서나 영업에서나 어떤 분야에서

든 목적을 갖고 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를 참담하게 만듭니다. 인생이 돌아가는 길에 빈손으로 간다면 이보다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안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룯을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자녀는 부모에게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시골에서 키운 이것저것을 챙겨줍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라반은 간교하여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려고 하였으나(창 31:42) 하나님께서 야곱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빈손으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실 때 그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룯은 보아스에게 올 때 빈손으로 왔으나 보아스는 룯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세상을 떠날 때 다음과 같은 귀중한 것들을 손에 쥐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나 주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으나 주께서는 자신의 아들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돌아갈 곳은 지옥이었으나 주께서는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으나 주께서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주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

우리는 썩을 것에서 왔으나 주께서는 썩지 않을 것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저주아래 왔으나 주께서는 복을 갖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나 주께서는 많은 선물을 안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썩을 몸으로 왔으나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자신은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고후 8:9). 그러나 한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마 19장). 그는 왜 예수님께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는가? 그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물에 영존하는 생명을 덤으로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존하는 생명보다 재물을 더 귀중히 여긴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나 짚이나 건초로 지은 것은 불에 타버리면 빈손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나오미는 룻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구속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구속하는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 않

을 것입니다(18). 이것이 보아스의 열심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구속하든, 아니면 보아스 자신이 구속하든, 이 일은 보아스가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만일 보아스가 룯을 위해서 80-90%만 일하고 나머지는 룯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면 룯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모든 일을 다할 것이므로 룯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구속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80-90%정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완성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다 자신의 공로 10-20%를 더해야 100%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평생 노력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평생 노력해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나오미가 룯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조언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끝마치셨으므로 우리가 더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요 17:4)

주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 일하셨으나 우리가 주를 떠나 다른 길로 간다면 주를 심히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룯기가 앞에서 본 사사기의 어둔 시대에 쓰여진 것을 압니다(1:1). 그런 때에도 이스라엘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 없이 완전히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악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 땅에 보아스와 같은 자신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세상에서 실망한 사람은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에게 친절과 호의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룯의 대화는 3장에서 끝납니다. 이후로는 보아스의 역할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 2:20)

나오미와 룯의 대화는 3장에서 끝납니다. 이후로는 보아스의 역할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 2:20)

제4장

결혼

10. 신의 한 수, 무르기 4:1-8

1 “그때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2 또 그가 도시의 장로 열 명을 데려다가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더라.

3 그가 그 친족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4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네게 알려 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네가 그것을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내가 알게 하라. 너 외에는 그것을 무를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나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무르리라, 하니

5 그때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하니라.

6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무를 수 없나니 나의 무를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무를 수 없노라, 하니라.

7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8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네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

라, 하고 것처럼 자기 신을 벗으니라.”

바둑이나 장기를 두기 전에 다짐하는 말이 ‘일수불퇴’ 입니다. 알을 손에서 한 번 놓으면 불리하다고 물리기 없다는 뜻입니다. 물리기는 사소한 실수에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물리기는 전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도 물려주면 불리할 수 있고 어찌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는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무른다면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후에 이길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눅 3:38)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의 동산에서 잘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의 첫 사람이 뱀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이 실수는 우리 인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죽음, 저주, 고된 노동, 질병, 시기, 질투, 다툼, 분노, 살인, 폭력, 전쟁, 고통, 슬픔, 눈물, 끝없는 고통,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바둑이나 장기처럼 무를 수 있어서 죄가 없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은 우리에게 무르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르기를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역전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무르기를 허락하십니다. 무르기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원하시므로 인생 무르기를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아니야에 무르기를 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패색이 완연합니다.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이 무르기의 기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보아스와 롯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롯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롯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아침부터 쉼새 없이 일합니다(3:13). 그는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은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으로 중요한 일들이 모두 성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문은 재판을 받거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신 21:18-21, 22:15, 25:7, 수 20:4, 삼하 15:2)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일주일 중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가장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롯을 위해 엘리멜렉을 구속하기 위한 수고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즐거움으로 일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수고하였지만 그녀를 사랑하므로 마치 며칠 같이 여겼던 것과 같습니다(창 29:20).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요 5:17)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요일 2:1).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못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즐거움으로 일하십니다.(엡 5:25-27)

보아스가 롯과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편법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선권이 있는 친족에게 우선권을 돌리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아스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랐으나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상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히 11:6). 그러므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아스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악한 시대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 탈법 위법 등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보아스와 같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롬 12:2)

도시의 장로 열 명

보아스는 도시의 장로 열 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로들이므로 공신력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들을 열 명이나 불렀습니다. 증인은 한 사람이면 효력이 없지만(민 35:3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면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신 19:15). 보아스는 두 세 사람이 아닌 공신력 있는 장로들을 열 사람이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구속자로서 일하는 것이 열 명의 확실한 증인이 있는 가운데서 행한 지극히 공개적인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르기를 확증하는 장소가 도시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모압에서 온 여자이지만 온 도시에서 현숙하기로 소문난 롯을 산다는 것을 알고 그 무르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 열 사람만이 아니라 무르기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증인입니다. 보아스가 열 명의 장로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롯을 구속(=무르기)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증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책임자입니다. 둘째는 예수

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한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증인입니다(마 27:1). 셋째는 그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던 군인들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도 500여명이나 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은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루어진 공개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은 증인이 매우 많으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이 때 릿은 현장에 없었습니다(3:18). 그럼에도 보아스가 릿을 구속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릿이 그 현장에 있어야만 보아스의 그녀에 대한 구속이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해 이천 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아무도 그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만을 위해서 구속하시거나 그들에게만 구속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그 현장에 없었어도 이천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화해현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 2:2). 롯이 현장에 없었지만 보아스가 롯을 구속한 효력이 말해주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 4:5)

무르기 3-5절

레위기 25:25-28절에는 땅의 무르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를 팔았다면 그의 친족이 그것을 무르기 하여 판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본인이 무르기 할 능력이 없으면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친족이 형제를 위하여 땅을 무르는 것은 은혜요 의무가 아닙니다.(레 25:25)

반면에 형제의 이름을 일으켜주는 것은 명령입니다. 형제 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 맏아들을 얻으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만일 남편의 형제가 이를 거절하면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신 25:5-10)

엘리멜렉의 땅을 무르기 위해서는 레위기 25장의 땅과 신명기 25장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일으키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그 친족을 만나 그에게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 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고자 하므로 네가 그 땅을 무르라고 합니다. 네가 그 땅을 무르지 않겠다고 밝히면 보아스 자신이 무르겠다고 합니다. 그 친족은 그 땅을 물려도 되고 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족석에서 엘리멜렉의 땅을 무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

인 롯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친족은 자신의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하여 무를 수 없다며 자신의 무를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아무개

사람에게는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에게는 족보가 없던 시절에도 부르기 쉬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개”는 이름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그를 실제로 “어이, 아무개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서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힐만한 가치가 없을 때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누가복음 16:19-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당시에 유력인사였습니다. 그때에 그 유력한 부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부자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그 부자의 이름을 대면 누구든지 그 집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나사로를 찾고자하면 그를 아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들을 일도 없고 알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유력한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관심 없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임을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후세 사람은 그 부자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지만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성경에서 엘리멜렉의 가까운 그 친족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칭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남길 필요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지 않

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그의 행위를 통하여 왜 성령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무르겠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무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한 것은 엘리멜렉에게는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땅을 무르면 결국은 자기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명분도 얻고 실리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롯에게서도 사서 죽은 자의 이름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자, 계산이 틀려집니다. 롯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무르기를 한 그 상속은 전부 그 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되면 자신이 무르기한 비용을 건질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한 아무개는 손해 보는 무르기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기업 무를 권리를 주저 없이 보아스에게 넘겼습니다.

보아스

엘리멜렉이나 그의 아들들이 살아있다면 땅을 무르는 것이 소유주에게 돌아가므로 의미가 있지만 엘리멜렉의 경우는 본인도 아들들도 다 죽었으므로 그의 땅만 무르기 하는 것은 사실상 엘리멜렉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론의 아내였던 롯을 사서 그녀를 통해 엘리멜렉의 이름을 잇게 하지 않는다면 땅을 무르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까운 친족 아무개는 형제 엘리멜렉의 이름 잇는 것을 거부한 것이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이름을 잇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당연히 말론의 아내 롯을 사서 아내로 맞아 그의 이름을 잇고자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롯을 사는 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롯이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참으로 롯을 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권이 있던 아무개가 롯을 구속하여 엘리멜렉의 이름을 잇게 하여도 롯에게 좋은 일임을 압니다(3:13). 만일 그가 구속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롯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제 엘리멜렉을 위하여 롯을 사는 것이므로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므로 참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빌라도가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거합니다(눅 23:14,15).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증거합니다(눅 23:31).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십자가를 지키던 백부장과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거합니다.(마 27:54)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

롯은 밭에 감추인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아무개의 눈은 재물에 눈이 가려져 그 값진 진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인 아무개는 롯이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머니 라함으로 인해 이방인 여자일지라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롯에 대해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모압 여자 롯이 현숙함을 알았고 그녀가 밭에 감추인 값진 진주임을 알았습니다(마 13:45,46). 그러므로 보아스는 롯을 사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 잇기를 거부한 아무개의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침 뱉을을 당해야 하는 수치스런 행위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의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하여 이르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같이 하리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이름을 자기 신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 할 것이니라”(신 25:9,10). 그날 현장에 형제의 아내인 룻이 없었으므로 침 뱉음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의 행위는 형제 엘리멜렉의 이름을 잇게 함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아스처럼 율법을 성취하시되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8: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 아무개는 율법적이고 육신적이었으므로 룻을 살 의사가 전혀 없었고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겼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간 것과 같습니다.

- 보아스는 은혜이고 영적이며 그의 판단 기준은 사랑이므로 룻을 살 의사가 확실하였고 아무개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광을 얻었습니다.

11. 결혼 4:9-17

9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 날 증인이 되었고

10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룯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 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11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주께서 네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12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네게 씨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3 이에 보아스가 룯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시므로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 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 그가 네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네 노년에 봉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네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네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16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매

17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이스라엘에서 땅을 무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장차 메시아의 영광스런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들의 소망 때문입니다. 상속자가 없다면 메시아의 날에 대한 소망도 없어집니다. 무르기는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고 롯을 사서 아내로 삼아 죽은 자들의 이름을 잇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한 것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입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르겠다고 했으나 보아스는 엘리멜렉을 위해 무르고자 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의로운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늘의 왕좌를 버리셨고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으며 섬기는 자로 오셔야 하셨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야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저주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날 무르기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증인들은 보아스를 축복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백성과 장로들로부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롯과 결혼하기 전에도 부자요 강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롯과 결혼함으로 결혼 전보다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롯의 4대손 다윗 왕으로 인해 유명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더욱 유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나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신 후에 그분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유명하게 되신 것과 같습니다.

그날 모였던 많은 증인들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11,12). 하나님께서도 룯이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결혼에 복을 주셨습니다. 룯이 아들을 낳자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였습니다(14,15). 보아스에 대한 축복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라는 것이었는데 아들에 대한 축복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라는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유명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는 그 아들보다 더 좋아합니다. 동네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의 뜻을 가진 오벳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오벳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들이 오벳의 출생을 나오미와 함께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벳의 출생은 보아스와 룯과 나오미와 엘리멜렉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은 나오미에게 친족이요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에 봉양자요 아들입니다. 친족은 곧 구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회복자는 가문이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나오미를 모실 것입니다.

룯기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룬 사람은 나오미와 룯입니다. 모압 족속은 저주를 받았으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 없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십 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 집토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에서 브울의 아들 발람을 사서 너를 치고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신 23: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자 룯은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선대하였으며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녀는 자기 백성과 자기의 신들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백성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택하여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그녀의 선대와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 보아스와 결혼하여 그의 아내가 되었으며 그녀의 증손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룻기는 마치 우리나라의 옛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처음에는 갖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아름다운 왕자나 예쁜 공주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잘 먹고 잘 살았더라는 우리의 옛 동화. 룻기는 계속 들어도 언제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룻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우리의 재미를 위해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룻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룻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모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동서 오르바가 룻과 같은 선택을 했다면 그녀도 룻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룻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를 아는 여자들은 그녀를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재물 복도 없는 팔자 센 여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며느리 룻으로 인해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룻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제는 나오미를 복이 없는 여자, 팔자 센 여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현숙한 며느리 룻 덕분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예표입니다. 그녀가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며 모압 여자 룻을 며느리로

삼은 것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11:11). 롯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나오미가 회복 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한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해줍니다.

보아스는 부자이고 강력한 자였습니다. 그의 주변에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늙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도록 그의 결혼을 막으셨다는 것은 너무 편리한 사고입니다. 롯기 어디를 보아도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많이 들도록 결혼하지 않은 것일까? 어떤 사람은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과거 가나안 땅 여리고의 창녀였다는 핸디캡 때문에 결혼을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녀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구해준 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또한 유다 자손 군대의 총지휘관인 나손의 아들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라합의 과거가 보아스의 결혼에 문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늙도록 보아스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이스라엘의 기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처신으로 보건데, 그가 살았던 재판관들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였으며 주께서 보상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히 11:6).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자손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며 서로 통혼하는 시대였습니다(삿 3:5-7). 그러나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악을 따라 가나안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풍속을 따라 가나안의 남자와 결혼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딸들 가운데서도 보아스는 현숙한 여자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남자가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은 그에게 화관이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 거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뼈 속의 썩은 것과 같으니라.”**(잠 12:4)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떠난 이유가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롯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를 위로하는 대신 “이 사람이 나오미냐?”고 쑥덕거렸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불행에 대해 잘 쑥덕거리지 않습니다. 나오미에 대해 쑥덕거린 사람들이 같은 여자들일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여자들 중에서 남자의 화관인 현숙한 여자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나이 들도록 결혼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숙한 여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중에 보아스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자 롯을 만났고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잠 31:10). 보아스가 기다리던 현숙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한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여 끝까지 그 가족들에게 선대한 롯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예비해두시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현숙한 여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때를 기다리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

혼하였다면 우리는 보아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보아스와 룯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운명이 결정되다.

오르바와 아무개는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으나 그들의 선택에 따른 운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 남았고 멸망으로 가는 인생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으며 그녀는 잊혀졌습니다. 아무개가 엘리멜렉의 상속을 무르고 룯과 결혼하였다면 그의 운명 역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생명의 책에 아무개가 아닌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유익에 따른 선택을 하였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오미는 우상의 땅 모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함으로 그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룯의 운명은 그녀의 별 볼일 있는 선택에 따라 별 볼일 없는 인생에서 별 볼일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룯기는 룯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잘 살았다는 것으로 끝나고 그녀의 죽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생명을 말해줍니다. 죄인의 운명은 정죄 받은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 비극적인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일 룯이 그녀의 동서 오르바와 같이 모압 땅에 남았다면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모압의 무능하고 비인격적인 신들을 섬기기보다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인격적이고 능력있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서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날개 아래로 온 룯을 보호하셨고 크신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

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죄인은 모두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극적 운명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롯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고 오르바는 운이 없어서 롯과 같은 결말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롯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오르바는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었으나 우상을 섬기던 옛 생활의 선택을 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선택이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길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롯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롯과 같은 행복한 결말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요 3:16,17)

우리는 롯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재판관들의 시대는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은 경건한 사람을 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 위에 계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주께로 돌아온 나오미와 모압 여자 룻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위로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렘 10:23)

12. 베레스의 족보 4:18-22

18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가문의 조상들 중에서 유명인물이 있으면 그 가문을 빛냅니다. 후손들도 자기 가문에 그러한 유명인물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족보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왕가의 족보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에는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10대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10대 중에는 유명인물과 특이한 사건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베레스

베레스의 출생은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베레스는 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창 38장). 유다에게는 엘, 오난, 셀라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이 다말과 결혼하였으나 그가 사악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씨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을 알고 형에게 씨를 주지 않아 그 역시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유다는 막내까지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였습니다. 다말은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시아버지가 자신을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자 시아버지가 덤눗으로 내려올 때 창녀로 위장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임신하였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죽이라 하였으나 그녀를 임신하게 한 장본인이 자신임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다말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의 출생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베레스에 대하여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룻 4:12)라고 말합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집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스의 자손들 중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이 된 암미나답,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 유다 자손의 군대를 지휘하며 이스라엘의 선봉장이 된 나손, 여리고의 창녀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해주었던 라합과 결혼한 살몬 등이 모두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또한 베레스는 아버지 유다가 받았던 “실로가 오실 때까지 흠(笏)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창 49:10) 라는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장차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집안을 일으켜 모두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부끄러운 출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출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암미나답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입니다(출 6:23).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암미나답의 딸 엘리세바는 대제사장의 아내가 되고 아들

나손은 유다자손 군대의 총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로보아 암미나답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유력한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손

나손은 유다지파의 대장이었습니다(민 2:3).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면 성막의 출입구가 있는 진영의 동쪽에 진을 쳤으며 이동할 때면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가 맨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유다자손의 군대가 이스라엘 전체를 선도한 것입니다. 그 유다자손의 군대를 지휘한 선봉장이 나손입니다(민 10:25). 선봉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가 선봉장에 달려 있습니다. 선봉장이 승리하면 사기가 올라가고 선봉장이 패하면 전체 사기가 떨어집니다. 선봉장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손은 지도자 모세의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살몬

한 때 여리고의 창녀였던 라합과 결혼합니다. 족보에 실린 외에 살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의 비천한 창녀였으나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 2장). 그녀는 주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실 것을 알았고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진멸한 일들을 들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수 2:11).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줌으로서 여리고와 함께 진멸될 운명에서 그녀의 집안 모두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나손의 아들로 유다지파의 유력한 집안인 살몬

은 라합을 아내로 맞아 그녀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되었고 그 열매가 보아스입니다. 라합 만이 믿음의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살몬 역시 그녀와 결혼함으로 성경 한 책의 남자 주인공이요 경건한 보아스의 아버지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아스

다윗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성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왕국과 왕좌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던 왕입니다(대상 17:12-14). 베레스의 족보를 실은 것도 이 다윗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가 왕의 필요를 알게 하였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왕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롯기는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왕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보아스와 롯은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주인공이요, 다윗은 이러한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출생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롯기는 우리에게 왕의 나타나심이 임박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사사기가 왕이 없어 생긴 혼란이므로 왕의 필요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돈스럽기 그지없습니다. 3500년 전 재판관들의 시대보다 더 혼돈스럽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간음죄 폐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설교하면) 불법이 되는 시대, 권위의 실추, 타락의 성행, 불법이 성행함, 사랑이 식어감 등등 모두가 혼돈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왕의 필요를 절감하게 합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시대가 왕의 오심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룯기가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왕의 오는 길이 예비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비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31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섬김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넥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1000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옴기 연구	Dr. Ken Blue	372	13000
75	로마서 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DeHaan, M.D.	120	5000
79	옴기	Dr. Samuel C. Gipp	48	1000
80	사무엘 김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 수준의 생활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종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86	칭의에서 성화로	김영균	102	5000
87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종욱	294	8000
88	믿음 사용 설명서	Linton M. Smith	96	4000
89	솔로몬의 인생보고서	전종욱	384	14000
90	룻기	전종욱	144	5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

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지은이

전 종 욱

- 신내침례교회 담임목사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551(5층)
- 교회전화 : 02) 435-0068
- 휴대전화 : 010-9191-1207